

“ 저 무려스 한 해 ”

영원한 이별, 년(年)아, 너와 나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이별이다.

지난 한 해 너와 나는 서로 끌어안고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뛰고 웃고 울며 살았지.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 이별도 좋다. 내가 다음 해에 가서 아니, 내 인생의 날에 너를 추억 하련다. 나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치는 날들을 저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앉아 나를 사랑하시는 자가 불꽃같이 나를 지켜 사랑하고 방패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신 날들을 미친개들이 나를 쫓고 여우와 이리들이 괴롭히며 나를 쫓을 때 여호와께서 주신 높은 망대에 앉아 여호와와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들이 거리로 다니며 갖은 증상 모략함을 보았노라.

여호와께서 이를 보고 분노하사 사냥꾼을 보내어 모두 사냥케 하였도다. 이 같은 날들을 내 어찌 잊을 수가 있으랴.

저 하늘의 태양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는 송년의 날이로다. 다시 만날 수 없는 너와 나의 이별은 창조주가 흐르는 세월을 두 번 다시 흐르도록 창조치 않음이로다.

후회 없는 너와 나의 년(年)이로다. 안녕.....잠언시 '저무는 해를 보내며'의 전문이다.

참으로 맞는 말인 듯싶다. 이 년(年) 저 년(年) 해도 새 년(年)이 최고인 것은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해이기 때문일 것이다. 누구에게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말이다. 을유년 한 해. 나름의 행·불행을 각자 나누어 가졌을 것이지만, 개인적으로는 정 말이지 기억해내고 싶지 않은 답의 해다. 대소의 불행이 끊이지 않은 한 해였다. 송구영신의 즈음. 그래서 더욱 영신의 기대가 작지 않다. Y

박성주/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



나의의견 상품은 성보화학(주)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.

1·2월호 주제 「새해를 맞으며」

원고 3~5매 정도(A4 2/3)의 분량으로 매월 25일전까지 우편 또는 kcpark@koreacpa.org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.

월동 병충해 방제 전문약

쿠무러스

인상수화제

성보화학주식회사
TEL.(02)753-2721

BASF
The Chemical Company